

전북농업과 첨단기술의 '컨버전'

전북도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8호관에서 '제4회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페어'를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도내 농생명 관련 기업들의 자사 제품 및 성과를 전시하고 농생명 SW융합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산능학연관 상호협력력을 위한 네트워킹 축진의 장을 위함이다.

이을러, "우리농업과 첨단기술의 융합, 대한민국의 농업수도 전라북도"를 슬로건으로, 도내 농생명 SW융합 기업의 제품 전시 및 농생명 SW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교류 세미나를 진행한다.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페어 내일부터 이틀간 전북대서

도내 농생명 SW융합기업 제품 전시·국제교류 세미나
온실용 정밀농업시스템
농업 정보화 '네오팜' 전시

전북도는 2015년 6월부터 농생명 인프라에 SW·ICT를 접목하여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농업수도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도내 유망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SW융합전시관에서는 농생명 SW 융합클러스터를 통해 발굴된 도내 기업들의 스마트 농생명 제품들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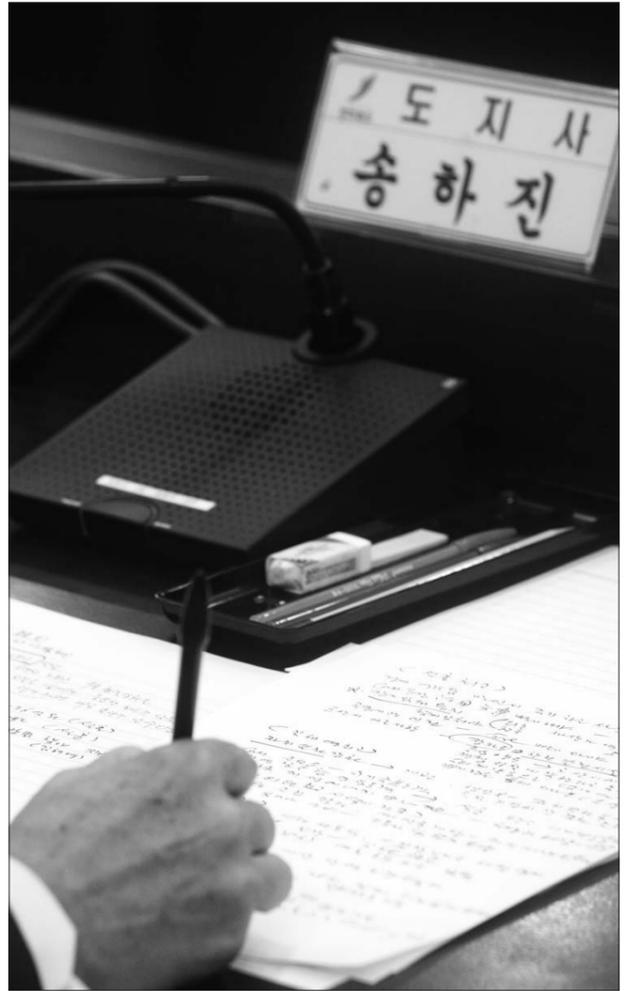
전시는 정밀농업을 위한 스마트 팜, 로컬푸드 통합관리 시스템, 한우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축산 스마트 플랫폼, IoT기반의 식물재배기, 스마트 농기계 모니터링 시스템 까지 시설원예부터 축산 농기계 등 20여개 사의 스마트 농생명 제품 등이다.

(주)에스에스엘(장영원 대표)은 온실 환경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온실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실용 정밀농업시스템을 전

시할 예정이다.

(주)메디양시스템(박기선 대표)은 로컬푸드 통합관리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현재 전국 각지의 중대형 직매장 및 급식센터에 납품 운영중인 농업 정보화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스마트팜 시스템인 네오팜(NeoFarm)을 전시한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농생명 SW융합페어는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 농업수도로의 도약을 위한 농생명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밝히며, "농생명 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전라북도가 농생명 분야에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미래 농업으로 앞장서 가는 데 큰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백백한 도지사의 노트

'아름다운 나라 민생 챙기기' 2018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 정책 협의회가 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의원들의 발언을 노트에 옮겨 적고 있다.

도내 최대 규모 홈·리빙아트 전시회 연다

'리빙아트&핸드메이드페어' 9일부터 3일간 GSCO에서

전북도내 최대 규모 홈&리빙아트 전시회인 '2018 리빙아트&핸드메이드페어'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18 리빙아트&핸드메이드페어'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주최하고 GSCO,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북공예협동조합이

주관하는 군산 대표 종합예술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300여개 부스로 구성된 홈&리빙 인테리어 소품, 아트&디자인 미술품, 수공예품, 디지털, 지역특산물 등 더욱 풍성한 부스 품목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뉴욕 갤러리 경매전,

김병하 동화작가전, 웹툰 전시, 전통 공예디자인 전시, 케릴라 버스킹, 공예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어 관람객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아트상품 기획전에서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프린트된 가방, 시계,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특별관이 마련돼 저렴한 가격에 아트&디자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특히 GSCO 야외광장에서는 '2018 히트상품 특별관매진'이 동시에 개최돼 지역특산물, 위기지역 중소기업 우수상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전시회는 최신 리빙스타일과 핸드메이드 공예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로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군산만의 특색 있는 대표문화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페이스북 팬 30만명 돌파'

NH농협카드, 15일까지 행운의 숫자뽑기 이벤트

NH농협카드가 공식 페이스북(Facebook) 팬 30만명 돌파를 기념해 오는 15일까지 '행운의 숫자뽑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NH농협카드 페이스북의 '농카 로또 뽑기' 영상을 보고 1부터 30까지의 숫자 중 1가지 추첨 예상 번호를 선택, 축하 메시지와 함께 댓글을 작성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페이스북 가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농협카드 공식 포스트를 팔로우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는 해당 번호를 맞춘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당첨자는 총 300명을 선정하며, 1등(5명)에게는 유승호 기프트 카드 10만원, 2등(5명)에게는 보토 에어 프라이어, 3등(10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4등(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3만원권, 5등(50명)에게는 영화예매권 2매, 6등(200명)에게는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트폰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카드 페이스북(www.facebook.com/nhnhonghyupcard) 또는 NH농협카드 블로그(www.nhncardblo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내 최대 규모 홈&리빙아트 전시회인 '2018 리빙아트&핸드메이드페어'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리빙아트&핸드메이드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도, AI 현장 대응 가상방역훈련 실시

조류인플루엔자 행동지침 따라
김제에서 종합대응태세 점검

전북도는 지난 1일 김제시 거점소독장소(김제 스파랜드 주차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현장 대응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전라북도 주관, 김제시가 주최하여 개최된 이번 가상방역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실제상황을 가상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됐다.

또한, AI 발생을 가정하여 신고부터 살처분 및 상황종료 시까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관련단체(협회)의 초동방역 능력을 배양하고 방역기관별 종합적인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가상훈련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부터 발생 상황 종료시까지 일련의 방역과정을 현장시연과 대형스크린을 통해 중계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이뤄졌다.

전북도 농축수산물품질관리원(최재용)은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가상훈련을 통하여 각 방역기관별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방역의식과 대응역량이 제고되는 계기가 됐다"며,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도 방역 준수사항 이행 등 AI 청정화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